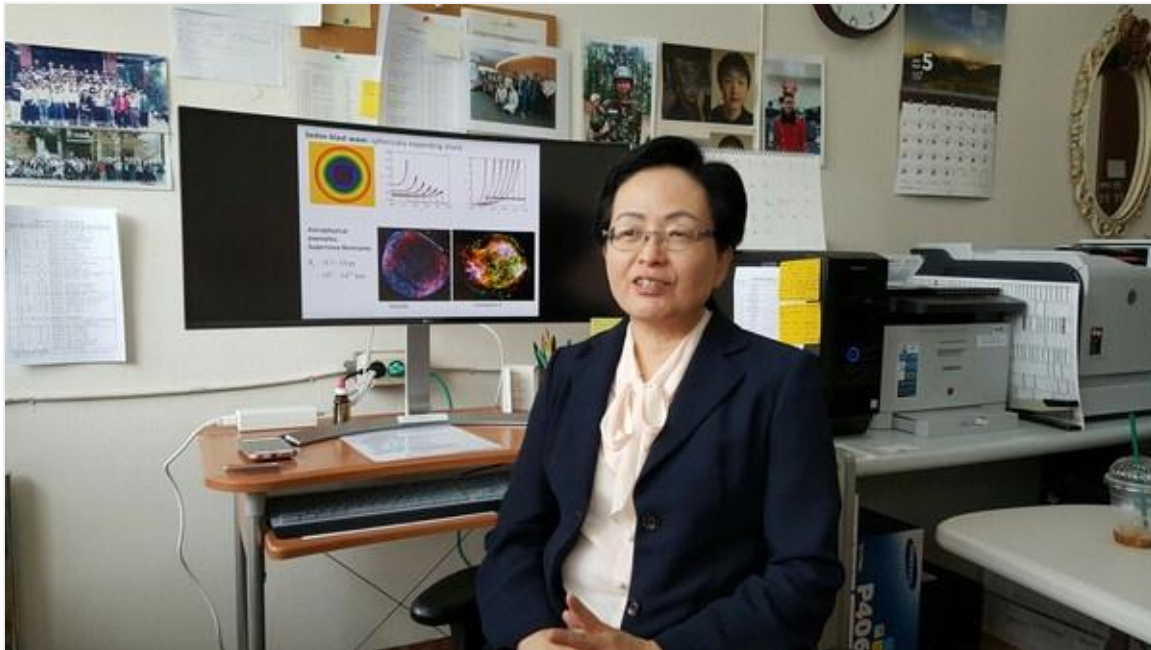


강혜성 천문총회 조직위원장 "천문총회 유치는 우주 강국 도약의 기회"

임원철 기자 walm@busan.com 입력 : 2017-05-24 [19:23:16] 수정 : 2017-05-25 [10:20:21]
 게재 : 2017-05-25 (35면)



"한국 천문학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여기에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뿌듯했어요."

2021년 국제천문연맹총회 부산 유치 등의 공로로 지난달 개최된 2017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수상한 국제천문연맹총회 조직위원장 강혜성 부산대 교수.

2021년 부산에서 개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수상

관련 과학자 수천 명 방문

"3년마다 한 번씩 대륙별로 열리는 천문연맹총회는 '천문 분야의 월드컵'이라고 할 정도로 큰 행사입니다. 한국 천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훈장은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데, 힘을 모아준 천문연맹총회 유치위원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난 강 교수는 중학교 때 쿼리부인 위인전을 읽고, 또 학교 천문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 서울대 천문학과를 거쳐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박사후연구원 등을 하다 1999년 부산대 교수로 부임했다.

2014년 강 교수가 한국천문학회 이사로 활동할 때 '총회 유치' 의견이 나왔다. 강 교수는 그동안 국제 학술대회 조직위원으로 활발하게 일해 온 경력 덕분에 유치위원장을 맡게 됐다.

"당시 남아공, 칠레, 캐나다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뛰어들었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몫했지만, 유치위원회 소속 여성과학자들이 제안서를 꼼꼼하게 작성한 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동반자 돌봄프로그램 등은 아주 호평을 받았어요."

강 교수도 유치에 일익을 담당했다. "미국 하와이에서 총회 임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유치 프레젠테이션 때 저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했어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지 천문학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만약 부산에 총회가 유치되면 이런 시각이 바뀔 것'이라고 하니 임원들이 눈빛을 반짝이더군요."

2015년 8월 부산 유치가 결정됐다. "발표 전에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어요. 연맹총회는 범국가적인 행사예요. 2012년 중국 베이징 총회에서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 주석이 기념사를 했을 정도예요. 이후 중국은 천문우주과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우주 강국으로 급성장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를 잘 살렸으면 해요."

강 교수는 현재 조직위원을 꾸리고 있다. 내년 중 조직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강 교수는 고에너지 우주선 기원에 관한 학술활동으로 천체물리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공저자로 관련 연구 논문을 사이언스에 게재했으며, 이런 공로로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받았다.

"총회에는 수천 명의 과학자와 가족이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국내 천문 분야 발전은 물론 부산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물론 부산시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글·사진=임원철 기자 wclim@busan.com



주소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우편번호 48789 전화번호 : 051)461-4114

COPYRIGHT (C) 2015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webmaster@busan.com